화분

"머리 조심해. 짐 아직 정리 다 못 했어."

"뭐야 이 잡동사니는?"

태림은 거적대기 비스무레해진 검정색 면 쪼가리를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다.

"집이 너무 좁은거 아니야?"

"그래도 이만하면 요즘 괜찮은 매물이거든. 창문이 크니 통풍도 잘 되고. 무엇보다 역세권에 이 가격에 이런 집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시는지. 성태림씨, 지금 제 선택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뭐… 아님 말던가."

진아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태림이 입술을 샐죽거렸다. 조금 열린 창문 너머로 서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와 뒷목을 스친다. 완연한 가을이다.

"이리 와봐. 태림이 네가 아직 이 방의 매력을 몰라서 그래."

진아가 태림의 손목을 단호히 낚아채 후미진 한구석으로 잡아 이끌었다. 태림은 순순히 진아의 손에 이끌리어 이리저리 갓 마른 시멘트 위에 바른 크림색 벽지에서는 새 건물 특유의 퀘퀘한 공사장 냄새가 났다. 천장까지 닿을법한 진아의 짐 박스도 그 불유쾌한 향기에는 한 몫을 보탰다. 벽을 가린 박스 더미를 진아가 가볍게 발로 밀어 치우자, 생뚱맞게도 그 자리에 창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닥에 바싹 붙은, 붉은 틀의 작디 작은 문.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배치지?

태림이 실망한 티를 낼세라 잽싸게 바닥에 넙죽 엎드려 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진아였다.

한 번만 더 믿어 보시라니깐요. 한 번만!

동그란 눈을 또록또록 굴려 살살 꼬드기면 태림은 언제나와 같이 넘어가고야 만다. 그것이 비단 11년을 함께한 소꿉친구, 모진아가 그 대상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태림은 언제나 그랬다. 누구에게나 그러했다. 앙 다문 고집스러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결론이란 언제나 단 하나 뿐이었다. '이번 한 번 뿐이야'

"어때, 이건 제법 괜찮지?"

시끌벅적한 반대쪽 대로변과는 다르게, 이쪽 작은 창문으로 내려다보이는 거리는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길이었다. 짙은색 가정집들이 일렬로 즐비하게 들어차 있고, 간간히 오래된 구멍가게들이 눈에 띄는, 평화로운 길. 떠돌이 황구가 엉덩이를 씰룩대며 여유로이 길가를 누비다 전봇대 앞에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 웩, 진아가 신음과 함께 손을 들어 태림의 눈을 가리자 태림은 고개를 슬적 기울여 그의 손을 피했다.

"이건 인정, 멋지다."

오른손에 꾹 눌린 태림의 입에서 바람빠지는 듯한 웃음 소리가 났다. 진녹색의 옥상 페인트가 노을빛 아래 반질반질하게 빛났다. 아직도 장독을 쓰는 집이 있기는 하네. 역 근처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날지 못하는 비둘기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홀쭉한 비둘기 한 마리가 총총거리며 항아리 사이 사이를 활보했다.

"그런데 왜 저기에 창문이 있는데? 설계 실수 아니야?"

"아마도 그럴걸. 그래도 멋지지 않아? 저거 덮기 싫어서 엄마한테도 말 안 했는데."

"어이구, 철부지야. 언제 철들래?"

"왜, 뭐, 너도 분명히 좋아했거든요?"

태림은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손가락으로 빗어 넘겼다. 묶기에는 너무 짧은 애매한 길이의 엷은 갈색머리가 흐느적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러고보니 태림이 이름, 한자 뭘 쓴다고 했더라?"

"클 태(太)에 수풀 림(林). 왜?"

"아니 그냥… 새삼스럽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 그거 진짜로 새삼스러운 소린데."

실없는 소리를 하는 진아를 향해 태림이 가볍게 주먹을 날렸다. 태림의 작은 주먹에 맞은 진아는 오만 죽는 시늉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가 이내 오뚝이처럼 몸을 굴려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 이제 진짜로 집에 간다. 내일 또 보자."

"오냐, 집 들어가면 전화하고."

*

현관에 놓인 신발이 한 켤레 뿐이다. 태림보다 몇 센치나 큰, 익숙한 하얀 아디다스 운동화. 산지 얼마 되지 않아 몇 군데 묻은 흙먼지를

제외하곤 구김 없이 깔끔하기만 하다. 태림은 멀끄러미 그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아빠 아직 안 오셨니?"

"금요일에 동호회인가? 어쩌구, 그런거 있다잖아. 아마 늦을걸."

태림은 목소리가 들리는 작은 방의 문고리를 비틀어 돌렸다. 둥그런 손잡이가 잠금쇠에 걸려 미처 다 돌아가지 않았다.

"성수림, 문 열어."

"아, 왜, 언니 옷 여기 없잖아."

성질머리 하고는. 나도 저 나이때에는 그랬나?

대답해 줄 사람은 마땅히 없다. 태림은 방문고리와 씨름하기를 금세 단념했다. 태림의 고집이 성냥불이라면, 수림은 한창 뜨겁게 들끓는 용암과도 같았다.

"성수림. 수림아?"

시끄럽게 깔깔대던 목소리가 한순간 뚝 끊겼다. 하나는 분명히 동생의 목소리였는데, 다른 하나는 소리가 낮고 굵다. 남자친구인가?

"씨… 또 왜? 야, 잠깐만 끊어봐. 우리 언니야."

"성수림."

"왜! 제발 조용히 좀 살자."

"너 캐리어 없니? 그 있잖아, 졸업여행 간다고 중학교 친구들이랑 강원도 갔을 때. 뭐 들고 갔어?"

"없어! 나도 스쿨백 들고 갔단 말이야."

"그래? 그 가방은 어디에 있는데?"

"안방 벽장 위에 남색 가방… 그런데 그 가방 엄청 큰데. 나도 3박인가 짐 꾸리면서 헐렁하게 남았을걸? 언니 여행 가방으로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냥 캐리어를 사지 그래."

"잘 됐다. 좀 빌려가도 되지? 다음 주에는 돌려줄 테니까."

잠금쇠가 철컥 돌아가는 소리와 거의 동시에 수림의 방문이 터지듯 열렸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본래 엷은 갈색을 띄던 머리를 검게 물들인 수림은 흡사 처녀귀신 같았다. 태림은 괜스레 자신의 짧은 머리를 만지작거려 보았다. 귀밑을 겨우 찌르는 갈색머리가 어쩐지 허전하게 느껴졌다. 꼭 있어야만 했던 것이 사라진 것처럼.

"왜? 언니 어디 여행가게?"

"모진아 기억나니? 어릴때 몇 번 봤을텐데."

"전혀. 그게 누군데?"

"그, 슈퍼하는 집 있잖아. 모르면 됐고."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수림은 고개를 젖히며 인상을 짜증스레 찌푸렸다. 이불에 문대어 반쯤 날아간 화장은 척 보기에도 어설펐다. 이미 중학생일 적에 태림의 키를 두 뼘은 족히 넘어섰으며, 둥그렇고 포동포동한 얼굴형을 가진 언니에 반해 일찍부터 갸름하고 얄쌍한 태의 뺨이 눈에 두드러졌던 수림이 태림보다 어린 티를 내는 면은, 단지 그뿐이었다. 갓 중학생 티를 벗은 어설프기가 그지없는 떡화장.

하여간, 기집애. 집에 들어오면 그 보기싫은 화장부터 좀 지우라니까.

"모지나고 뭐고 간에. 그 가방은 왜?"

말 한 번 예쁘게 한다. 얌전히만 있으면 참 예쁘장할 얼굴인데. 한껏 일그러진 얼굴 위에 엉성히 발린 화장은 빈말로도 귀엽다는 말 한마디 얹기가 어려웠다. 태림은 입속으로 혀를 한 번 끌어 찼다.

"걔네 어머니가 이번에 새로 건물 올리셨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거야. 학교는 그냥저냥 통학하겠는데, 과외까지는 아무래도 무리더라고."

"그런데? 정 그러면 다음 학기에 기숙사 신청하면 되잖아."

"다음 학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그리고, 요즘 학교 기숙사 소문도 흉흉하더라. 오늘 아빠한테 말씀드릴테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있어."

태림은 오래된 플라스틱 박스들 사이로 얼핏 보이는 회색의 가방끈을 힘주어 잡아당겼다. 틈 사이에 꼭 낀 스쿨백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맥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가방은 수림의 말대로 다른 짐가방이 필요없을만치 큼직했다. 무심코 태림의 시선이 수림의 맞은 편의 방을 향했다.

"비켜. 언니 내일은 짐 싸서 나가야 하니까."

태림은 수림을 지나쳐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은 수림의 방과 마찬가지로 반쯤 열려있었다. 가구라고는 긴 책상과 텅 빈 책꽂이가 다인, 사람이 거주한 것 같은 흔적이라곤 없는 싸늘한 방. 바닥 한 가운데 덩그라니 놓인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얼마간의 옷가지가 태림의 전부였다. 태림은 스쿨백을 물티슈로 말끔하게 닦고는 미리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옷가지를 망설임 없는 손길로 척척 옮겨담았다.

'칫솔, 칫솔은 아주머니 슈퍼에서 사서 올라가면 되겠지. 그것 하나만 덜렁 들고 갈 수도 없으니… 세면도구는 이미 진아가 챙겨 놓은 것 같았고. 좌탁 한 개는 더 챙겨가야 할까?'

일찌감치 분권을 마친 전공책과 교재 몇 권, 필기도구, 노트, 파일 몇 개, 부피도 얼마되지 않는 여름 옷 얼마. 막상 짐을 꾸리자니 챙겨야 할 것은 생각보다도 많지 않았다. 태림은 책꽂이를 향하여 몸을 일으켜 세웠다.

"…너 거기서 뭐하니?"

문지방에 떡 하니 버티고 선 수림을 보며 태림은 미간을 좁혔다. 저게 뭐 하는 짓이람? 손위 형제한테 관심 구걸할 나이는 오래 전에 지났는데.

햇빛은 맞은편 수림의 방 창문으로부터 들어온다. 빈 방의 창문에는 나뭇잎이 두껍게 드리워져 컴컴키만 했는데, 암막 커튼마저 설치한

이후로는 정말로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 컴컴키만 했다. 때는 이제 노을이 산자락에서 겨우 아른거리는 늦은 저녁이었고, 거실과 안방을 제외한 두 방은 처음부터 불을 켜두지도 않았다. 한 빛이 드는 것은 오직 복도에 서 있는 수림의 등 뒤 뿐이었으므로, 수림의 모습은 검푸르게 물들어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진짜로 내일 나가는 거야?"

"그럼 진짜지, 가짜겠니?"

태림은 스쿨백을 들쳐 메고선 수림의 어깨를 가볍게 주먹으로 퍽 쳤다. 물론 순순히 태림의 힘에 밀릴 덩치는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스스로의 걸음으로 물러 나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수림은 순순히 자리에서 비켜서지 않았다. 두 다리에 힘을 주었는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뿌리를 박은 듯한 당혹스러운 무게감에 저도 모르게 태림은 수림을 올려다보았다.

"수림아, 너 지금 엄청 귀신 같아서 무섭거든. 화장 지우고 머리라도 묶던가. 보는 사람도 좀 생각해라."

여전히 태림의 눈에는 수림의 표정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이 과연 오래 전에 나가버린 전등의 문제였는지, 스태드 아래서 공부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시력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의 문제였는지, 태림은 알지 못했다.

"언니, 집 나가지 마."

수림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태림은 자신을 두고 훌쩍 커버린 동생의 덩치를 마주했을 때보다도 더욱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조부모댁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팔치를 일곱 바늘이나 꼬매게 되었을 때도 그 긴 과정에서 한 번도 울음을 머금은 적이 없는 아이다. 병원으로 향하는 삼촌의 차 안에서도 그저 짜증스러운 얼굴로 그저 제 팔을 빤히 내려다 봤더랜다. 애교가 많고

희노애락의 표현이 극적으로 뚜렷한 수림이었으나, 울음, 그 하나만큼은 손위 형제인 태림에게도 역시 생소한 일이었다. 차라리 격노함이라면 모를까.

"가지 마. 꼭 가야겠다면 나도 데려가. 언니."

그래, 생각해보니 그의 동생은 피아노도 제법 오랜 시간을 배웠다. 공기 놀이를 할 때면 그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숭덩숭덩 공기를 먹어치우던 것을 태림은 기억한다. 끈기가 없어 무엇이든 한 달을 이어나가지 못하던 수림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까지 이어 나가던 취미가 바로 그, 피아노였더랜다. 바로 그 손이 지금 태림의 옷깃을 붙잡는 것이었다. 아니, 붙잡다는 표현은 과연 옳은 것인가. 오버핏에 가까울 정도로 허벅지를 길게 덮는 태림의 노랑색 티셔츠가 수림의 손가락에 아슬아슬 걸쳤다. 꼭 낚시라도 하듯이. 태림이 한 번 허리를 흔들면 떨어지기라도 할 듯 약한 힘으로.

태림은 목을 타고 흘러나오는 대답 대신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아 자신으로부터 떼어 놓기를 택했다. 잠시간 그 모습을 내려다 보던 수림은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시 문은 굳게 닫혔다. 시끄러운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태림은 한참이나 그 문을 빤히 바라보았다.

*

"아빠, 저 자취하려고요."

철과 철이 맞부딪히는 소리, 철이 자기 그릇에 부딪혀 우는 소리. 단지 달그락거리는 젓가락 소리 외에, 집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수림은 진작에 저녁을 챙겼다는 말을 남기고는 집까지 찾아온 또래 무리의 손에 이끌려 외출한 참이었기 때문에 오늘 식탁에는 태림과 아버지, 단 둘 뿐이었다.

"이미 집은 구했어요. 하루가 급해서, 아빠만 허락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갈 생각이에요. 집세는 되도록 손 벌릴 일은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고요."

평소에도 필요 이상으로 건조하다는 인상을 주는 무딘 성격의 두 사람의 식사 자리는 영 썰렁하기만 했다. 그것을 불편히 여기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삭막한 분위기는 층에 층만을 더했다. 대학생이 막 학기를 마친 참이니, 고등학교는 이제야 하나 둘 기말 시험을 시작할 터였다. 학교에서 하루 두 끼를 꼬박꼬박 해결하는 태림의 아버지가 일년에 자매와 얼굴을 맞대고 한 식탁에 앉는 때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상은 국 한 그릇 없이 미리 무쳐둔 나물 몇 종류가 전자레인지에 돌린 불고기만이 단출하게 차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약속 나가셨다길래 저녁은 챙기고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하기사, 아빠는 술자리라면 먼저 질색을 하며 피하고 보는 분이시니까.'

이런 일은 전에도 종종 있었다. 태림은 대수롭지 않게 아버지의 늦은 귀가를 생각에서 지워버렸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라."

저녁상보다도 단출한 허락이 떨어졌다. 때마침 그릇을 깨끗이 비운 태림은 고개를 꾸벅이곤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 벽에 덩그라니 걸린 시계의 시침은 어느덧 저녁 아홉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래들과 달리 태림과 수림에게는 정확한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던 적이 없다. 언젠가 태림이 독서실에서 깜빡 잠이 들어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서야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의 집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다. 태림에게는 남들의 이야기처럼 몽둥이를 꺾어가지곤 거실에 버티고 선 엄한 아버지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온 파출소에 전화를 돌리는

사려깊은 어머니도 없었다. 태림은 괜스레 뒷목을 긁적였다. 뒷목이 썰렁했다.

"아빠, 수림이 너무 귀가가 늦는 거 아니에요?"

"수림이야 평소에도 일찍일찍 다니는 편은 아니었잖니. 그야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겠지. 너무 신경쓰지 마라."

그래도. 밤 열시를 넘긴 적은 없었는데.

"제가 수림이한테 한 번 전화해 볼게요. 쉬세요."

"해 뜨기 전에는 저가 알아서 돌아올거다. 괜히 그러지 말고 일찍 자라. 태림이 너도 내일 바로 이사한다고 하지 않았니?"

설마 별일이야 있겠나. 하물며 시간은 이제 겨우 아홉시를 넘겼을 뿐이다. 수림은 많은 친구와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일이 잦았으나, 다행인지 활동반경이 그가 살고 있는 동을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더군다나 수림은 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수림이 돈을 쓰면, 즉시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되는 식이었다. 그 애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놀고 있는지에 대해 아버지의 걱정이 덜한 것은 어찌보면 마땅한 일이었다.

태림은 만지작거리던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꼽고는 수림의 방으로 향했다. 태림이 덮고 자야 할 이불마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림은 침대 아래로 비뚜름하게 떨어진 하얀 여름 요를 거침없이 들추고는 그 아래 감추어져 있던 서랍을 열어 능숙하게 이불과 베개를 맞은편 방으로 옮겼다. 고등학생 한 명이 쓰기에는 다소 커 보이는 감이 있는 이 침대는, 본디 태림과 수림 자매가 함께 사용하던 침대였다.

태림이 독립을 선언하기에 한참 앞서, 가족 중 누구보다 먼저 독립을 선언했던 것은 다름 아닌 수림이었다. 자매의 맞은편 방이 주인을 잃은 지 꼬박 5년째 되던 해였다.

‘언니도 이제 고삼이잖아. 한창 예민한 시긴데, 동생이랑 같은 방 쓰기도 불편하지 않겠어? ’

‘나는 쓸만한데.’

‘내가 싫다고. 제발 나도 침대 한번 혼자 좀 써보자.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비워둘거야? 저 방.’

독립을 선언한 것은 수림이었으니, 정작 방에서 내쫓긴 입장은 태림이었다. 태림의 방으로 사용하기로 한 바로 그 방은, 학생에게 필요한 어떤 가구도 기물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의 ‘작업실’로서의 기능에 최적화된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귀가하는 태림이 자신의 방에 요구하는 바는 잠자리 제공 이외의 마땅한 것이 없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태림과 수림의 실질적인 생활공간은 분리될 수 없었다. 태림의 옷은 여전히 침대 아래칸 서랍 한켠을 빼곡히 차지했고, 원목 책장의 절반은 태림의 문제집과 교과서, 액자의 자리였다. 실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자리는 조금 넓어졌지만. 태림은 몸을 몇 번 뒤척거렸다. 아무리 몸을 이리저리 굴러도 딱딱한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질 염려가 없는 잠자리는 통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

… 누렁 소가 일을 잘 하오, 검정 소가 더 잘 하오?

쟁기를 내려놓고 달려와 귀엣말로 대답하던 어느 농부의 일화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모름지기 비교하는 습관이란 한낱 미물 대미물이라도 분란만을 일어나게 할 뿐이라고. 오늘날 철저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해당 일화가 전해줄 수 있는 교훈은 변함없이 분명하다.

"뭐야, 아버님 또 책 내셨어?"

진아는 들쭉날쭉하게 잘라놓은 수박을 한 조각 큼직하게 베어 물고 있었다. 아삭한 소리는 그저 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그러워, 태림의 마음까지도 괜히 한 구석이 시원함에 물드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감이 있었다.

"아니. 몇 년 전에 내신거. 이게 여기에 있었는지는 나도 몰랐는데."

"얼른 돌려드려야하는거 아니야?"

"다음번 집 갈 때나 가져가지, 뭘. 이건 아빠도 존재도 기억 못 하고 있을걸."

한 32절지 크기 정도는 될까, 한 눈에도 유달리 작은 책등을 잡아 태립은 탁 소리가 나도록 한 손에 쥐었다.

"그래도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하루만에 허락까지 받고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대?"

"내가 뭐랬어. 금새라니깐."

우리 집은 옛날부터 그랬어. 태림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수박을 입안 가득 밀어넣었다.

"아버님은 또 분명히 누구랑 같이 사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을거 아니야. 내 말이 맞지? 너무해라. 그래도 세상에 둘 밖에 없는 금쪽같은 딸내미들인데."

"새삼스럽게? 그리고, '둘 밖에'가 아니라 '둘 씩이나'겠죠, 이 외동 따님아."

"요 싹퉁바가지 없는 기집애. 너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버님은 얼마나 속이 상해 하시겠어? 하나나, 둘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신 딸내미들이라는 사실이야 어디 변하겠니."

진아는 손가락을 쪽쪽 빨며 제 친구를 가늘게 뜬 눈으로 흘겨 보았다. 어깨를 작게 으쓱이며 미간을 좁히는 것으로 진아의 비난에 답을

대신한 태림은 곧 끌어안은 두 무릎 사이로 고개를 푹 떨구었다. 녹색 페인트칠을 한 옥상을 머리에 쓴 집들 사이로 볼품없는 꺽다리 전봇대들만이 자리를 지킨다. 빨간 사각틀 안 세상은 너무나 작아 괴리감마저 느껴졌다. 간간히 어깨며 등에 짐을 바리바리 들추어 멘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스쳐지나가지만 그것도 그저 아주 짧은 시간 뿐, 거리는 금새 다시 조용해졌다.

"맞다, 내가 이거 보여줬던가?"

앉은 걸음으로 엉거주춤 돌아선 진아는 더러운 손가락 대신 손목으로 그것을 끌어안다시피 들어올렸다.

그것의 정체는 작은 화분이었다. 아니, 사실은 식물을 담은 예쁘장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당했다. 둥그런 도자기 그릇은 특이하게도 외곽에 구멍이 숭숭 뚫린 희안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속에 들어찬 흙은 빤히 보이면서도 뿌리가 단단히 엉겼는지, 신기하게도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구멍이 그릇의 위에 뚫려 있으면 뭣에 쓰니? 썩은 물이 빠져나가려면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지."

그러면 뭐 하나, 나무에 물을 주면 분명 흙이 다 녹아 저 구멍으로 지저분하게 졸졸 흘러내리는 흙탕물만 될 것인데. 태림은 손을 뻗어 도톰한 다육이 식물의 잎을 만지작거렸다. 어리디 어린 잎은 촉촉한 수분기를 머금고 있었다.

"얘, 진아야."

"왜."

"너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도 외동으로 태어날래?"

"음… 한, 형제 다섯 정도 되는 집만 아니면 난 뭐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 그건 왜?"

"그냥 물어봤지. 외동은 조금 더 편하게 사나 싶어서."

태림의 맥락을 뛰어넘어 뜬끔없기까지 한 질문에 진아는 손목으로 꽃받침을 하듯이 턱을 괴었다. 물론 더러운 손가락은 두 뺨으로부터 붕 뜨도록 신경써서. 진아는 평소에도 학교생활을 제외한 이외의 영역에서는 특이하리만치 과묵한 축에 속하는 이 친구의 어릴적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십년이 훌쩍 시간동안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로 함께해 온 진아조차 태림의 가족에 대해서는, 글쎄.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동생이 있다는 사실 정도나 겨우 알고 있는 사정이었으니, 그 외의 사람들은 이루 말할만한 것도 없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아는 태림과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지기였다. 진아는 무려 태림의 또래 지인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그녀의 어머니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두 사람이 2시면 학교를 마치고 집 앞 분식집에서 500원짜리 컵볶이를 나누어 먹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가 태림이 친구구나? 같은 반에 검도 학원도 같이 다닌다는. 맞지, 그치? 이모가 이 기억력은 아직 살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공주, 지금 학교 끝난거야?'

엷은 갈색의 조금 길게 자른 숏컷의 여자를 진아는 이때까지 다른 수많은 친구들의 어머니들을 만났을 때와 같이 싹싹한 발음으로 '이모'라고 부를 수가 없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멀뚱거리기만 했다. 첫째로, '이모'나 '아줌마'와 같은 다소 연식이 느껴지는 호칭으로 불리기에 그녀는 너무나 젊어 보았다. 태림에게 부모님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어디 그애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그뿐이겠는가. 진아는 여전히 태림의 어머니의 나이 같은 상세한 정보는 알지 못했다. 둘째로, 그녀는 예뻤다. 참관 수업 날이면 모든 집의 어머니는 가장 단정한 옷에, 고운 화장을 펴바르고 온다는 것은 11살의 진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태림의 어머니는 그런 부자연스럽고 낯선 아름다움과는 엄연히 달랐다. 마치 당시 텔레비전에서 한창 유명하던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배우를 눈 앞에서 만난 기분이었다.

진아는 혀를 한 번 가볍게 끌어 찼다. 태림의 어머니에 대한 목격담이 그렇게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6년 전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영원히 눈을 감았다. 이전부터 앓던 지병의 악화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님 기일이 다음 달이던가…'

혹시 그것 때문인가? 도무지 태림의 말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진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평생을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의 외공주로 자란 진아로서니 엄마의 기일과 동생의 존재는 연결점 따위를 떠올릴 수 있을리는 만무했다.

"사람 사는게 다 똑같지 뭐. 동생이랑 싸우기라도 했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돌아온 태림의 답은 완전히 의외의 것이었다.

"아마도."

"뭐? 진짜로?"

하마터면 이미 삼킨 수박이라도 뱉을 뻔 했다.

"성태림이? 동생이랑 싸웠다고?"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지금 네가 먼저 물어봤잖아."

"나야 그냥 한 말이었지. 누가 진짜일 줄이야 알았겠냐고. 네가 어디 동생이랑이나마 시시콜콜 티격태격할 그런 위인이니? 그리고, '아마도'는 또 뭐야? 싸운거면 싸운거고, 사이가 좋으면 그냥 좋은거지."

"몰라. 싸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울었어."

네가?

아니, 나 말고 걔가.

허공에서 바쁜 시선이 맞닿았다.

"대체 어쩌다?"

태림은 답 없이 도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추측컨데, 창문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수박을 진작에 다 삼켜서 다행이었지.

"그건 그렇고, 너 손가락 뺨에 붙었다?"

신경써서 빳빳히 힘을 주고 있던 손가락이 어느샌가 두 뺨에 짝 달라붙어 있다.

"아! 봤으면 진작에 좀 알려주지!"

요란스럽게 화장실로 달려가는 태림의 발걸음에 진아의 태림의 어깨가 웃음으로 소리없이 들썩거렸다. 두 겹 강화 유리를 뚫고 매미 우는 소리가 방 안까지 시끄럽게 울려퍼졌다. 여름이 한창이다.

*

아주 의외로, 어릴적 울음이 많던 것은 수림이 아닌 태림 쪽이었다. 때문에 수림이 학원에서 피아노를 두드릴적에, 태림은 반 어거지로 검도 수련관에 밀어넣어졌단다. 모름지기 계집애가 종일 울기만 하면 복이 날아간다고. 그것은 태림의 어머니의 지론이었다.

'네 인생의 복이 말이야. 네 인생의 복이. 이것 좀 봐. 요즈음에는 사람들이 웃는 법들을 통 몰라 예쁘게 미소 짓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란다. 나는 그런걸 보면 통 안타까워.'

태림은 평소와 같이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마땅히 일정이 있는 날도, 맞춰둔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태림의 오랜 버릇 가운데 하나였다. 잠귀가 유독 밝았던 수림은 그런 그를 아침잠 없는 노인네 같다고 투덜거렸다.

잠버릇이 험한 진아의 손은 새우잠이 익숙한 태림의 몫의 자리를 충분히 채우고도 모자랐는지, 기묘한 각도로 꺾인 채 매트리스 밖으로 떨어져 있었다. 태림은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의 소중한 손목을 잡아 배 위에 올려주었다. 친구로서의 최소한의 의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어디선가 울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수돗물이 새는가? 그보다는 무언가 연상되는 것이 마땅히 없는, 어떤 물체가 그보다는 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주먹이라던가… 그래, 꼭 문 두드리는 소리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새벽에? 시간은 아직 5시 23분,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한 태림은 비척비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리 진아나 태림이나 찾아올 사람이 없다고는 그러나 이곳은 태림의 집이 아닌, 엄연히 말하자면 진아의 집이었다.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그럴 일은 없겠다마는, 진아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볼 일이 생겨 찾아오셨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진아의 휴대전화는 잠잠하기만 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화면까지 켜 보았으나 그 사이에 울린 부재중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순식간에 뒷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급습하는 싸늘한 감각에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잠기운마저 완전히 태림의 머리를 떠났다. 온 몸에 흐르던 피가 얼어붙은 것만 같았다.
입주로부터 태림은 하루, 진아는 이제 사흘이 된 참인 단 두명의 여학생이 사는 집이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말 그대로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오실 일이 없을 친구 어머니일 확률과, 그 외의 누군가일 확률 가운데 높은 쪽은 어느 쪽이지? 단 몇분만에 수만가지의 불길한 추리와 기사들이 태림의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태림은 최대한 어떤 소리도 나지 않도록 발꿈치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장판에 맨살이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울려 태림은 그만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오늘 밤 따라 공기가 습하다.

귓가에는 태림 자신의 발소리만큼이나 크게 빗소리가 울린다. 낮에는 분명 밝았는데.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는 도저히 짐작을 할래야 그럴 수가 없다. 현관에서부터 작게 울리던 소리는 태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느리고,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왜지?'

태림이 현관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완전히 멎어 있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다.

'아, 여기에 구멍 하나만 작게 있었어도…'

문제가 닥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이 있다. 태림은 바로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이중잠금장치부터 사러 가야지. 마음 속으로 몇 번이고 그것을 새기는 태림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아무리 이중잠금장치도 구멍도 없이 허접하게 생긴 현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묵직한 철문이다. 강제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인터넷 상에서 널리 전자 도어락과는 달리 태림의 자취방은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구식 잠금장치라는 것은 그나마의 다행스러운 사실이었다. 문고리를 잡고 고민하는 그 잠시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성태림, 야. 안에 있는거 안다. 나오라고."

문이 한 번 크게 울렸다. 태림은 깜짝 놀라 그만 문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다. 아마도 문을 주먹으로 힘주어 때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보다도 놀라운 것은 착 가라앉은 여자의 목소리는 낯이 익어도 그렇게 익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성수림?"

"언니? 야, 미쳤어?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너니, 벨 울리면 재깍재깍 기상하게? 그리고 내 휴대전화는 항상 진동이거든?"

점점 세차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짜증을 이기지 못하고 태림은 그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십여분을 허비하도록 만든 두려움은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막대한 짜증이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왔다. 태림은 애써 이성의 끈을 붙들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두문자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고작일 뿐이었다.

"잠깐만. 너, 여긴 어떻게 알았어? 분명히 아빠한테도 정확한 주소는 말씀 안 들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림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동일한 떡진 산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7월 중순, 새벽공기는 서늘했으나 후드집업은 과했다. 태림의 눈이 동생의 차림새를 빠르게 훑었다. 유명한 아동 만화 캐릭터가 박힌 무늬의 반바지 잠옷이 눈에 띄었다. 태림은 수림의 후드집업 멱살을 잡아 힘으로 지퍼를 뜯어내듯 내렸다. 놀란 수림은 당연히 반항했으나 태림의 돌발적인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수림은 위 아래로 모두 잠옷을 갖추어 입고 있었다.

"너 설마 지금 이 차림으로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닌거야?"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제 동생이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빤히 알고있는 자매로서는 그럴만한 일이었다.

"적어도 방학 때는 집에 있을 수 있잖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거야. 제발 진정 좀 해라. 잡을 수 있는 과외가 전부 학교 근처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근처 사는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그러면 돼?"

"성수림."

"누가 이 새벽에 소리를 질러… 지금 정신머리가 있니, 없니?"

기어코 진아마저 잠에서 깨어나고야 말았다. 분노까지 어린 목소리에 그 자세 그대로 굳은 태림과는 달리 수림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진아를 똑바로 노려 보았다. 밖은 푸르스름하여 이미 동이 터오르고 있는 아침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진아의 위치와 대략적인 얼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수림과는 달리 갓 잠에서 깨어난 진아는 흐린 눈을 가늘게 찌푸려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했다.

"야, 성태림. 이 집에 너 혼자 사냐? 문을 그렇게 함부로 열어주면 어떡해?"

"미안, 금방 돌려보낼게. 다시 자라."

"돌려보내긴 뭘 돌려보내?"

'이걸 간덩이가 부었다고 해야하나, 용감하다고 해야하나.'

"누구야, 동생?"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태림은 그만 아득해지는 정신에 이마를 짚고 말았다. 키도 멀대같은 것들이 양쪽에 서서는.

"저기요, 언니. 새벽에 시끄럽게 한건 정말 미안한데, 남의 집 일에는 좀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와, 제 엄마를 아주 그냥 쏙 빼닮았네.

진아는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탄성을 지를 뻔했다. 다만 다른 것은, 머리, 그래. 머리카락 정도 뿐. 어릴적부터 제 엄마를 똑 닮은 옅은 갈색 머리를 한 번도 물들이거나 기르지 않고 고집해 온 태림과는 달리 그 동생의 길게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새까만 색이었다. 아직 태양빛이 어둔 새벽녘이었기에 언뜻 착각인가, 싶을 법도 했으나 그 앞에 바로 서 있는 태림에 비하여 그것은 과히 다른색과 헷갈릴래야 그럴수 없는 선명한 검은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침이라 그런가 이게 정신이 좀 덜 돌아왔나보다. 너희 지금 우리 집에서 싸우고 있거든? 야, 네 동생 두번 울렸다가는 아주 건물도 무너지겠네. 어쭈? 얘 눈 좀 봐라. 사람도 치겠다."

지금 조금 더 폭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두 사람 중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진아 본인일텐데. 피해를 가한 입장에 동생과 덩달아 묶여있는 태림은 어쩐지 반박하고 싶어지는 느낌을 억누르곤 수림을 향해 입을 뗐다.

"스토커보다도 네가 더 무섭다야. 너 설마 한집 한집 이렇게 다 뒤지고 다녔니? 정말로?"

"그럼 어쩌라고. 네가 말도 안 하고 나갔잖아. 그래, 말 잘했다. 진짜로 아빠도 너희 집 모르고 있더라? 너도 참 독하다, 독해."

태림은 못 당하내겠다는 듯 두 손을 다 펼쳐 들었다.

"좋아? 너만 숨 막혀? 그렇게 집구석이 갑갑했으면 아주 멀리 가버리지 그랬어. 꼴랑 친구 집이야? 나도 성인이었으면 진작에 나갔어. 짐 싸서 너보다 훨씬 멀리멀리 꺼졌다고."

"그럼 나가지 그랬어? 아빠는 내가 아니라 네가 당장 내일부터 자취하겠다고 해도 별 말 없이 허락해줬을걸?"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태림의 어투에 끝까지 약이 오른 수림은 벌게진 얼굴로 빽 소리를 쳤다. 새벽 하늘보다 새까만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태림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렇게 악을 썼다. 그런 수림의 모습이 소위 말하는 미친 여자 따위보다는 아주 어린 아이의 땡깡에 가까워보여 진아는 그저 혀를 찰 뿐이었다.

'참을성 없기는. 그래도 애다, 애.'

비록 그 대상이 오밤중에 온 동네를 뒤져서 언니 자취방을 찾아내는 광인일지라도, 어리기는 참 어렸다. 상황만 나열하자면 소름끼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입장에 놓여있었을 진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그저 따분하고 딱한 마음만이 차올랐다. 왜 그럴까,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는 진아는 어느새 살벌한 자매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저 상황을 관전하고만 있었다.

"솔직히 말해줘? 내가 너였으면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았다. 그렇게 출가가 좋았다면 하다못해 기숙사라도 알아봤겠지. 네가 뭘 그렇게 노력했니?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 새벽에 나한테 이래?"

그래, 태림과 수림의 구도는 그간 진아가 목격해온 통상적인 자매 싸움과는 결 자체가 달랐다. 그것은 그저 풋풋하지도, 어린 티 나는 유치한 수준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자매보다는 모녀지간 같달까.

'그렇지만 겨우 세 살차이 아닌가?'

바로 그 점이 의아함의 근원이었다. 벽에 비스듬히 기대고 선 태림의 딱딱하게 굳은 얼굴은 차갑기를 넘어서 위압감까지 느껴졌다. 겨우 세살 차이나는 자매가, 엄마와 딸보다 더 모녀지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격이 서글서글해 유달리 친구가 많았던 진아는 일찍부터 이들 자매 이외에도 여러 형제 자매간의 싸움을 많이 목격한 바 있었다. 띠동갑을 훌쩍 뛰어넘는 자매나, 연년생 형제나. 결국 싸움이란 다를 바가 없었다. 에너지 넘치고, 유치하고, 가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을 함께한 흔적처럼 묻어나는 애정에 그저 외롭게 자란 진아에게는 탐이 나는 모습의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왜?'

저런 자매는 싫다. 진아는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저런 것이 자매라면, 단언하건데 진아 자신보다 행복한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는가?

"했어! 나도 하려고 했었다고!"

"뭐라고?"

"나가려고 했어! 기술에는 관심도 없는 내가 왜 기계공고에 지원했지 언니가 알기나 해? 그놈의 기숙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나는 뭐야? 떨어졌잖아."

태림은 눈살을 찌푸렸다. 수림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전혀 낯익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때 담임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나 같은 애가 공고에 지원하니까 기술자 인식이 뭣같아지는 거래. 나 같은 애들 때문에. 너무 억울한데 한 마디도 못 했어. 그래, 나 기술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그 학교 가는 것 하나가 간절한 친구들이 널렸는데도 나는 그냥 기숙사때문에 그 학교가 필요했으니까."

안다, 물론 태림과 수림은 전혀 다른 경우의 수였다. 고등학교 삼년을 독서실에서만 틀어박혀 보낸 태림나, 중학교 삼년동안 각종 태도 불량 벌점과 학부모 상담을 이유로 아버지를 학교에 수 번은 걸음하게 한 수림. 둘 사이의 간극은 거대한 계곡과 계곡마냥 멀고도 깊었다. 그래도, 수림은 한 번도 선을 넘긴 적이 없었다. 태림은 어릴적 제 목까지 오는 갈대숲을 헤치고 아장아장 용감한 걸음을 내딛던 수림의 모습을 기억하지만 치마는 손바닥만하고, 웨이브 진 머리에 입술은 쥐를 잡아먹은 듯한 동생의 모습 또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수림은 그저 어렸다. 그맘때의 아이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나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나도 매일 독서실 다녔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어. 언니처럼 새벽까지 책 펼치고 허리 꼿꼿이 세우는게 어디 모두한테 쉬운 줄 알아? 그냥 언니만큼은 못 했을 뿐인데. 그게 언니한테 그런 말 들을 만큼 그렇게 큰 죄야?"

태림은 입을 꾹 닫았다. 태림도 지금만큼은 수림의 그 선생과 다를 바가 없었다.

"넌 항상 너만 희생하고 너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그놈의 아빠만 생각하면 숨만 막혀. 그냥, 그냥. 너한테나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고 냉혈한일 뿐이지. 나는 아빠 눈을 마주치는 일만으로도 이제는 피가 거꾸로 솟아버릴 것 같다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대체 아는게 뭐야.

나래도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잘 안다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화가 나 죽겠어. 나도 차라리 너처럼 아빠나 닮을 것이지 나는 왜 엄마를 닮아서. 왜, 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실수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 수림에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악바리만 한가득 머금은 눈은 실핏줄이 다 터져 붉게 물들어 있었다. 태림도 안다. 이러한 눈은 하루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붉게 물든 자리가 아물면 또다시 터지고, 또 터지고. 겹겹한 피로가 쌓인 눈은 자신의 것처럼 익숙하게 와닿았다.

태림은 그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공기는 아직 차지만 한여름의 습기가 그보다 더욱 강하게 온몸을 짓누르는 어스름한 새벽, 수림의 성난 고함소리도 멎자 작은 방은 정말로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찼다.

*

"어디가?"

수림은 괜히 어색하게 허공을 맴도는 손을 등 뒤로 밀어넣었다. 수림이 언니를 마주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적어도 이번에는 그랬다. 맛집으로 이름난 모 떡볶이 집에서 만나자는 친구가 찍어준 주소를 따라 왔을 뿐인데, 도착해보니 꼭 이 골목이었던 것이다.

"요 앞 꽃집에, 화분 사러."

"화분? 이사할때 화분같은건 안 가져갔잖아."

수림은 고개를 갸우뚱 기울였다. 어쩐지 과장된 동작이었다. 수림은 마음 속으로 어색한 자신의 목을 백번이고 때리고 또 때렸다. 태림의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바스락 바스락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수림은 묻고 싶어 괜히 멀뚱히 내려다 보았다. 어느 것이 어느 타이밍에 꺼내야 할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나 말고, 모진아꺼."

수림의 얼굴이 눈에 띄게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뭐야, 걔네 화분을 왜 언니가 챙겨? 언니가 꼬붕이야?"

"진아네 어머님이 사다 주셨는데."

"그것 참."

수림은 입을 꾹 다물었다. 하여간 그놈의 입이 항상 방정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때 아닌 장마는 그쳤고, 언제 우울했냐는듯 맑게 개인 하늘은 레이저마냥 강렬한 햇빛만을 내리쬐었다. 그 날 이후 누구도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어느샌가 갑자기 기억에서 지워졌을리 따위는 없었으니 수림의 창피함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

'너는 정말로 언니한테나 잘해라. '

수림은 기억을 더듬으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떨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사과의 의미를 담은 자두 한 박스를 태림은 모르게 진아에게 살멈시 건네며 들은 한 마디 충고였다.

'자기나 잘하면…'

말문이 턱하니 막힌 수림을 대신해 태림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화분이 멍청하게 생겼어. 온 몸통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정작 바닥에는 없더라고?"

"그게 뭐야? 흙이 안 새나?"

"내 말이."

앞서가는 태림의 목소리에서 바람소리가 섞여났다. 언니는 웃고 있었다. 수림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어쩐지 웃기지도 않은 분위기에 그런 기분이 되어버려 수림도 언니를 따라 소리없이 웃었다.

"그래? 우리 성태림 보는 눈 정말 없는데. 그 식물도 어지간히 불쌍하다."

미운 소리가 먼저 튀어나가는 버릇은 도무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그렇다고 삐걱대는 자신을 내려 놓지도 못해 수림은 마음 속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같이 가던가."

수림의 동그랗게 뜬 큼직한 눈이 잠시 제자리에서 깜빡거리는 운동을 반족했다. 그렇게 말하며 태림이 내민 것은 그 검은 비닐봉투였다.

"정말로?"

그새 태림의 맘이 변할새라 벌어진 간격을 잽싸게 좁히는 수림이었다. 수림이

"이번에는 꼭 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부터 확인하자."

"아무렴, 당연히 그래야지. "

검붉은 색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골목을 두 사람이 걷는다. 매미가 울음을 운다. 완연한 여름 날씨에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가 쪼리 슬리퍼를 찐득하게 잡아당겼다. 골목을 스치는 작은 산들바람에 수림의 검은 머리와 태림의 엷은 갈색 머리가 흩어진다. 태양이 작렬하는 아래 단 두 사람만이 도로 위를 걷는다. 나란히 걷는 둘의 뒷모습은 언뜻 보기에도 닮은 것 하나 없지만, 비교할 대상도 되지 못한다.

누렁 소가 일을 잘하오, 검은 소가 더 잘하오?

여름, 여름이다. 만개한 꽃이 마침내 열매를 틔우는. 태림과 수림은 검은 봉투에서 깨끗하게 씻은 자두를 한 알씩 꺼내 입에 물었다.

같은 위치에 패이는 볼우물이 꼭 닮은 자매의 얼굴에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웃음꽃이 앞다투어 번지듯 피어난다.